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영혼의 달 되신 예수에 대해 말씀 받았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는 반드시 달이 있어야 합니다. 달이 있어야 배가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없으면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달이 되어서 방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유일한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튼튼하고 견고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고 튼튼한 달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뚫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론〉

1.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누구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히7:1)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14:17-20에 가병들을 데리고 사로잡힌 롯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을 몰살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되찾아옵니다. 이 때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반열이라는 것입니

다. 이 반열을 따라 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히7:2)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살롬이 이 살렘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발판 위에 세운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3)

이것은 멜기세덱이 세상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였지만 이 세상에서 출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초음부터 영원히 있었던 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히7:4)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살림의 십분의 일을 바칠 정도로 높은 분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히7:5-6)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받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조차도 멜기세덱보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지파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히7:7)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히7:8)

레위지파의 계보는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계보는 세상이 세운 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히7:9-10)

처음부터 선택받은 레위지파조차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만큼 굉장한 비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가 똑같이 죄인으로 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살렘 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하여 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왜 드렸는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분에게 십일조를 왜 드렸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2. 레위 계통과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히7:11)

만일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살렘 왕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난 레위지파 제사장들로는 창세기 3, 6, 11장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었지만 이들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히7:12-13)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율법도 바뀌어집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레위 지파가 드리는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율법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히7:14-15)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정한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히7:16-17)
예수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히7:18-19)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던 계명은 폐하여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가는 것이지 율법과 도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사람의 기준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상 주장하지 말고 내 의견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맞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이 복음만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히7:20)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성취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7:21)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말씀 성취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마리아에게 전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를 알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7:22)

언약의 보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으로(히7:23)

왜 아론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효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히7:24)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놀랍게도 이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신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는 항상 살아 계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히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풍성해집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지, 그런 영적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히7:27)

예수 그리스도도는 사람을 따라 세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붙잡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히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운 것입니다. 인간인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결론〉

▶오직 예수는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 성취, 약속의 맹세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을 알고 사용할 때 사탄이 벌벌 떨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